

LOCAL

2025년 3월 5일 수요일

강진청자축제에 봄맞이 관광객 17만명 '복적'

화순·초·중·고 1학년 학생 입학준비 인당 20만원 지급

화순군은 올해부터 초·중·고 1학년 입학준비금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화순장학회 기금으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씩 화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입생은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집중신청 기간에 신입생 주소가 화순읍일 경우 균형 대화의실(의화동 4층)에서 신청·접수한다.

신청과 동시에 지원 대상으로 확인될 시 각급 입학준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있다면 사업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입학준비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인구정책과(061-379-3351)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완도,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요일별 총 8곳 오후 10시까지

완도군은 심야 시간대에 군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 심야 약국은 늦은 밤 의약품 구입을 쉽게 해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키고 전문 약사의 복약 상담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

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개소로 완도읍은 6개소(온누리완도약국, 건강마트약국, 우리동네약국, 영신약국, 맑은약국, 하나로약국), 노화읍 1개소(정해약국), 소안면 1개소(소안하늘약국) 등이다. 요일별로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군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한 군민이 공공 심야 약국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완도군약사회와 협의해 공공 심야 약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키즈존·베베핀·싱어롱쇼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인기

음식점 29%·농특산물 93% 판매 ↑...경제 활성화 견인

봄의 서막에서 열린 '제53회 강진 청자 축제'가 방문객 17만명을 불러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청자축제는 지난 22일 개막해 지난 3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10일간 열렸다.

추운 날씨와 호우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축제장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메웠다.

올해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어린이 키즈존과 베베핀, 브레드이발소 싱어롱쇼,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등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직 청자 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물레 성형 체험, 청자 코일링, 청자 발굴체험 등 이색적인 청자 테마 체험 프로그램들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

청자 테마 체험 프로그램들의 성공은 민간 도예 업체들의 역할이 컸다. 도예 명장들이 강진의 명품인 고려청자를 알리기 위해 재료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구상 등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

또 청자 전시 판매전에도 18개의 민간 업체들이 참여해 강진 청자의 아름다움을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알렸다.

이 밖에도 불명 캠프, 족욕 체험, 화폭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오직 청자 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물레 성형 체험, 청자 코일링, 청자 발굴체험 등 이색적인 청자 테마 체험 프로그램들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

청자 테마 체험 프로그램들의 성공은 민간 도예 업체들의 역할이 컸다. 도예 명장들이 강진의 명품인 고려청자를 알리기 위해 재료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구상 등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

또 청자 전시 판매전에도 18개의 민간 업체들이 참여해 강진 청자의 아름다움을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알렸다.

이 밖에도 불명 캠프, 족욕 체험, 화폭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전 세계적으로



봄의 서막에서 열린 '제53회 강진 청자축제'가 관광객 17만명을 불러모으며 10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청자챌린지: 최후의 승자' 등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청자축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성공을 거뒀다. 축제의 피날레는 국민 포크 밴드 '자전

거 탄 풍경'과 현역가왕2 1위에 빛나는 가수 박서진이 장식했다.

이번 청자축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축제장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식점 판매 실적은 29% 증가했으며, 농특산물 판매 실적은 두 배 가까운 93%나 증가했다. 청자 판매실적 역시 작년보다 50% 증가했다.

이러한 영향은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프로그램의 역할이 컸다.

반값여행은 강진을 여행하면서 쓴 비용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으로, 개인당 최대 10만원, 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4회까지 신청 가능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부담없이 청자축제를 방문할 수 있었다.

강진원 군수는 "축제는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준비했다"며 "제53회 강진 청자축제가 강진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2025년 읍면동 주민과의 소통 일정을 마무리하며 주민 간의 신뢰를 다졌다.

윤병태 나주시장, 주민과 대화로 신뢰 다져

현안·미래 비전 제시...344건 건의·애로사항 확인

신속 조치 후 결과 1대 1 공유...만족도 높일 계획

윤병태 나주시장이 2025년 읍면동 주민과의 소통 일정을 마무리하며 주민 간의 신뢰를 다졌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5년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 2월 5일 송월동과 반남면에서 시작해 27일 노안면, 문평면을 끝으로 총 11일간 진행했다.

윤병태 시장은 전국 최초 직류 송전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선정, 해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나주영신강축제,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전남 최초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달성한 10대 혁신 성과를 소개했다.

지속가능한 농생명 발전, 에너지산업 기반 첨단과학도시 메카, 500만 나주 관광 시대, 미래 인재를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 등 2025년 시장 추진 전략, 세부 시책도 설명하며 미래비전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높였다.

특히 2024년 1월 출생아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원(전남도 1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 무료 결혼식장 대여와 미용, 웨딩 사진 촬영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공공 작은 결혼식', 대상 포진 예방접종비(60~50세), 나주에 배움바우처(3000명~5000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75~80세) 지원 확대 등 체감도가 높은 복지시책들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읍면동 20곳 주민들과 읍 시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총 344건의 애로·건의 사항을 꼼꼼히 챙겼다.

시는 주민 건의 사항을 현장 검토 후 주민과의 대화 처리계획 보고회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최종 결과를 1대 1로 공유해 사후 관리하는 등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바쁜 일과 중에도 대화에 참석해주신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중장기적 현안과 건의 사업은 관계 기관, 소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가족끼리 요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신안, 가족과 함께하는 위케이션 운영

신안군은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요리도 하고 자전거도 타며 색다른 여가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위케이션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암해를 쌍봉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신안군과 공동으로 공모해 선정된 코끼리 협동조합에서 주관한 사업이다.

총 24명의 참가자들은 2개 팀으로 나눠 1박2일 동안 가족끼리 목공 체험을 비롯한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자전거 타기, 요리 교실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에



위케이션 목공 체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창작 체험형 위케이션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섬에서 누릴 수 있는 색다른 여가문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이준기 기자 leek2123@

해남, 청년 창업 응원...방문 인증 이벤트 실시

해남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사기 진작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가게 방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청년 가게 방문 후 SNS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청년가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과 영수증을 지참 후 방문 후기를 SNS에 올리고, QR로 접속해 해당 게시글을 인증하면 된다.

군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BLUE(靑) FRIDAY' 청년가게 이용의 날로 정하고, 매월 '이달의 청년가게'를 선정해 가게 소식 등을 담은 SNS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청년가게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청년가게 목록,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